

오늘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영혼 탐험'



'어른을 위한 그림동화 심리읽기'

오이겐 드레버만 지음

그림동화가 어른도 함께 읽는 책이라는 데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이제, 아름답고 환상적인 이야기 이면에 억압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문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수긍해야 할 것 같다.

그림동화를 심리적으로 분석한 책이 나왔다. 독일의 신화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오이겐 드레버만이 쓴 '어른을 위한 그림동화 심리읽기'는 동화속 인물의 행동을 통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적 기제를 들여다본다.

흔히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착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수사다. 원래 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쯤 왜 그렇게 착할까, 하고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지적인 회의를 선물한다.

저자는 신데렐라의 원형인 '재투성' 등 세 편을 심리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중간중간 저자 특유의 문화적 상상력이 가미돼, 전체적으로 역동적 분위기를 준다.

재투성이라는 이름은 "재를 뒤적이고 재 속에서 핑구는 부엌데기, 천하고 더러운 여자아이"라는 뜻이다. 동화 속 재투성은 계모와 의붓언니들의 갖은 박해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뎌내며 주어진 일을 한다.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는다.

심리적으로 볼 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저자는 재투성의 내면 거처에 깔린 억압의 원인을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찾는다. 친모의 죽음을 목격한 아이의 내면에 트라우마가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이후 아이는 자존감이 낮은 소녀로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소녀는 지나칠 정도로 도덕적 우월감을 갖기도 한다. 계모와 의붓언니가 자신을 확대할수록 언젠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왕자'가 나타날 거라는 희망을 가진다.

현실에 눈을 돌려보면 '재투성'과 같은 인물은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이에게 부담주기 싫어 절대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는 이들을 위해 적잖은 고통을 감수하기까지 한다.

재투성이 서사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왕자를 만난 이후의 서사



다. 재투성이가 무도회에 갔다가 도망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대목이다. 고귀한 신분의 왕자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할까"라는 회의적 생각이 소녀의 발목을 붙든다. 낮은 자존감에서 기인한 퇴행적 행위다.

책을 읽는 동안, 문득문득 당신은 어떤가라고 묻는 저자의 목소리를 들게 된다. 저자는 행간을 통해 독자들의 심층에 숨겨진 다양한 '콤플렉스'를 건넨다. 그것은 그림동화가 아이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는 명제와 궤를 같이한다. 그림동화가 단순히 권선징악의 가르침이나 유희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그림동화는 인간에 대한 성찰이 담긴 지혜의 보고다. 영혼을 탐험하는 여정의 흔적이자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다.

그럼에도 독자로서 일말의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저자의 과도한 상상력과 논리적인 비약, 지나친 심리학에 대한 맹신 등은 그림동화가 주는 참맛을 다소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교양인·2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고통의 현실, 극단의 상황, 가족의 소중함

'너머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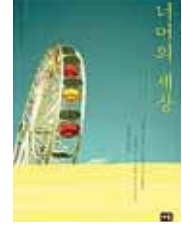
주원규 지음

"소설은 현실의 반영"이라는 말은 더이상 낯설지 않은 명제다. 우리 주변엔 소설보다 더한 현실이 펼쳐져 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한겨레문학상 수상 작가인 주원규의 새 장편 '너머의 세상'은 고통의 현실을 살아야 하는 이들의 삶을 주목한다.

여기 한 가족이 있다. 폭랑촌에서 치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지수, 아버지에게 방을 내주기 위해 집을 나간 아들 우빈, 계약 해지로 무기농성 중인 아버지... 이들 가족에게 삶은 가혹한 고통 그 자체다.

작가는 이들 가족을 더 극단의 상황으로 내몬다.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들의 고단한 삶을 밀



바다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나 지난 앞에서 가족의 소중함이 새롭게 발견된다.

고통의 현실에 이르러서야 가족애를 발견한다는 고전적인 의미가 다소 진부하다.

그러나, 작가는 가족애를 넘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식을 확장한다. 밀바닥으로 추락한 이들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더불어 시종일관 삶에 대한 희망을 견지한다.

작가는 "희망은 뼈저리게 힘들었던 순간을 복기하고 추억함으로써 저 너머의 희망을 더 강렬히 열망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건 아닐까 싶다...그 절박함이 글쓰기를 지속하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한다. 〈새움·1만1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시인에서 남자로... 김수영 아내가 쓴 김수영

'김수영의 연인'

김현경 지음

"나는 아직 당신과 동거중입니다."

김수영의 아내 김현경이 에세이집 '김수영의 연인'을 펴냈다. 한국 현대시사에 빛나는 '풀잎'의 시인 김수영 아내로 살아온 저자의 회고담이다.

지금까지 김수영의 작품을 다룬 시론 연구서와 단행본은 많이 출간되었다. 학문적·문화적인 조명도 솔하게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그의 문학에 대한 모든 조명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김수영은 시인이기 전,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으며 시대를 감지한 지식인이었다. 그동안 문학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인간 김수영의



면모를 엿볼 기회가 없었다.

책은 김현경의 눈으로 바라본 시인 김수영의 재발견이라는 의미의 갖는다. 무어곡절 끝에 신혼살림을 차린 일, 김수영이 인민군에게 징집되었다가 살아온 이야기 등이 담담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작가는 가족애를 넘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식을 확장한다. 밀바닥으로 추락한 이들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더불어 시종일관 삶에 대한 희망을 견지한다.

"당신보다 반세기를 더 살고 있는 내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가 나의 버팀목이 되었고 당신이 평소 인류를 위해 시를 쓴다는 그 말이 결코 막연한 말이 아니었음을 지금에 와서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책읽는 오두막·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책으로 만나는 '역사채널'

'역사'

EBS 역사채널E 지음

강렬한 메시지와 영상 그리고 음악, 'e'를 키워드로 한 5분짜리 방송은 순식간에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2004년 7월 EBS '지식채널e'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11년 10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역사의 작은 편린들이 뒤를 이었다. '역사채널e'의 시작이었다.

'역사'는 '역사채널e'의 내용들을 간추려 모은 책이다. 방송 내용에 해설과 참고서적을 더함으로써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지식의 밀도를 높였다. 여기에 '역사채널e'를 공동기획한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역사전문가

21명의 감수를 통해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고증과 확인 작업을 거쳐 신뢰를 더했다.

방송 제작진은 역사를 아는 것, 역사를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보는 것이 결국 현실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라는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를 책에서도 이어가고자 한다.

〈북하우스·1만48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그림의 뒷모습, 예술의 이중성

'그림값의 비밀'

양정무 지음

명작이란 어떤 그림일까? 얼마 정도면 그림 한 점을 살 수 있을까? 그림값은 언제 오를까? 그림값은 재료비에 비례하는 것일까?

가장 고고하고 심미안적 예술인 그림의 뒷모습이다. 현대의 세속적이며 절대적 수단인 '돈'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림의 이중성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서 서양미술사와 미술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양정무 교수가 상업주의 미술 이야기를 담은 '그림값의 비밀'을 펴



냈다. 책은 작가와 컬렉터가 미술 시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이는 여러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화가의 뒤에서 오히려 작가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미술 시장을 흔드는 '컬렉터(중개상)', 컬렉터가 없다면 지금의 미술은 시장이 형성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미술 시장의 역사적 전개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상의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 이 책의 포인트다.

〈매일경제신문사·2만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지위·재산·저항... '노비제도' 실체를 엿본다

'조선 노비들'

김종성 지음

과거에 노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 치부된다.

오늘날 특권층, 서민층, 상류층, 하류층을 막론하고 어느 가문이나 족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족보에서 '우리 가문의 시조는 노비 출신이었다'란 기록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족보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전체 인구의 최소 30% 이상이 노비 신분이었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있다. 나는 물론이고 내 친구, 아내, 이웃 등 10명 중 3명이 노비였다는 분석이다.

〈왕의 여자·한국사 인물통찰·'조선을 바꾼 반전의



역사' 등 역사 서적을 집필해온 김종성씨가 '조선의 노비들, 천하지만 특별할'을 펴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노비 열여덟 명의 삶을 소개하고 노비의 개념, 기원, 결혼, 사회적 지위, 재산, 저항 등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그동안 사극이나 문학 작품 등에서 '하나의 면'만이

부각된 노비들의 본 모습과 함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조선을 지탱했던 기둥 중 하나였던 '노비제도'의 실체를 설명한다.

책에는 신분의 구속과 무거운 의무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노비들의 모습도 나타나지만 노비로 태어나 공조판서를 지낸 인물, 재산을 축적한 부자 노비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이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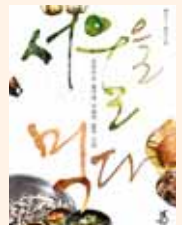
〈역사의이침·1만4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간

▲서울을 먹다=음식 기행자가 정은숙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서로 다른 시선으로 서울과 서울음식을 풀어냈다. 일제강점기부터 서울 명물로 소문난 설렁탕 외에 병면, 흥어회, 빈대떡, 부대찌개 등 17가지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책을 통해 본 서울 음식에는 이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고, 서울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 그리고 서울의 변화까지도 속속들이 담아내고 있다. 〈따비·1만6000원〉

▲숫자의 문화사=세계적인 언어학자 하랄트 하르만은 인간이 언제부터 수 개념을 사용했는지 추적했다. 그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문화가 지닌 수의 역사와 계산법들 그리고 행운의 수, 불행의 수, 마법의 수, 신화적인 의미를 지닌 성스러운 수 등 수가 지닌 상징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알마·1만3500원〉

▲리관유와의 대화=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경쟁력 세계 2위의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총리와 장관으로 52년간 재임한 리관유는 싱가포르 신화의 시작이자 끝으로 통한다. 미국 언론계에서 가장 유력한 '아시아 정보통'으로 손꼽히는 칼럼니스트 톰 플레이트가 올해로 만 90세를 맞는 리관유의 정체를 집요하게 파헤쳤다. 책은 2009년 싱가포르 이스타나에서 리관유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RHK·1만5000원〉



▲만인의 건축 만인의 도시=예술의 전당과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건축한 세계적 건축가이자 도시 설계자인 김석철이 그동안의 경험과 21세기 건축-도시 담론을 새로 추가해 독자들에게 건축과 도시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다. 책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천 년 도시와 천 년 건축의 사례들, 국내외에서 저자가 직접 건축과 도시를 설계하는 과정, 저자의 개인적 경험담과 건축 입문 과정, 건축과 도시 설계에 대한 여러 단상들을 이야기한다. 〈시공사·1만5000원〉

▲백은비사=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국제무역 학사와 세계금융 석사학위를 취득한 저자 용이가 은을 둘러싼 숨겨진 역사를 파헤쳤다. 저자는 한때 '은의 제국'이던 중국에서 벌어진 은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나아가 동서양이 벌인 화폐전쟁의 뒤편에 은이 있었음을 역사적 사례로 증명해 내고 있다. 〈RHK·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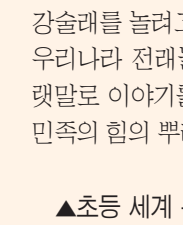
▲우리가 몰랐던 세계문화=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가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세계문화 체험을 바탕으로 편집한 책이다. '왜 한국인은 동성애에 적대적인가', '왜 한국 여성은 하의 실종·기저귀 패션에 강한가', '왜 한국은 셀카 공화국이 되었나' 등 한국에 안주해 우리끼리만 살았으면 모르고 지냈을 법한 외국과의 다른 점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인물과사상사·1만4000원〉



▲독도 고래 외뿔이=고래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놀림 받은 외뿔이가 신분의 차별을 딛고 성장해 '바다 속 바다'로 아빠를 찾아간다는 모험담을 그렸다. 시인 장석주가 지낸 해 펴낸 성인동화를 어린이들을 위해 새롭게 재창작했다. 일본으로 여겨지는 '해나라'와의 대립이 부각되며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있다. 〈킨더주니어·9800원〉

▲우당탕탕 놀이터=안전맨 '또조심'과 주인공 장난이, 여러 친구들이 등장해 어린이들에게 꼭 들어맞는 안전 지침을 알려준다. 공부할 때, 놀이를 할 때, 집 안에서 생활할 때 등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이야기로 꾸며 안전을 위해 주의깊게 행동해야 할 사항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국민서관·1만원〉

▲피카소가 모나리자를 그린다면?=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걸작 '모나리자'. 프랑스 예술가인 포르트 바르소니는 누구나 한번쯤 보았을 모나리자



그림을 모네, 고흐, 피카소와 같은 위대한 화가들이 그린다면 어떻게 그렸을지 상상해서 직접 모나리자를 그렸다. 31명 화가들의 고유한 미술 철학과 작업 기법으로서 그린 '모나리자'를 통해 서양 미술사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내인생의책·1만6000원〉

▲달 떠온다 강강술래='남생이는 고운 아이, 하늘 높고 별 좋은 날, 남생이가 고향에 차려 입고 강강술래를 놀리고 나서요.' 동화 작가 한미경이 우리나라 전래놀이인 강강술래 때 부르는 노랫말로 이야기를 엮어, 애환을 이겨내는 우리 민족의 힘의 뿌리인 흥을 표현했다. 〈웅진주니어·1만1000원〉

▲초등 세계 문화 100대 즐기기-유럽=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이 보고 싶은 나라를 대륙별로 묶었다. 최충우들 친구들의 여행 이야기와 함께 알록달록 오색 빛깔로 가득한 전 세계의 문화와 풍습, 일상이 숨어 있는 사진과 그림을 만날 수 있다. 〈RHK·1만3000원〉

어린이 책꽂이